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렙바이블 대본집

Ep.033

믿음으로 무너진 여리고 성벽

(여호수아 3장, 5:13~6:27)

아침 햇살이 이스라엘 진영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죠.

**“자, 자, 여러분! 미리 일러준 대로 모두
줄지어 서십시오. 어서요!”**

여호수아의 지시에 사람들이 긴 행렬을 만들었어요.
맨 앞에는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앞장섰는데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순금으로 입혀진 상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신다는 걸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죠.
언약궤 뒤로는 성막의 기구들을 짊어진 사람들이 섰고
그뒤로 다른 백성들도 줄을 지어 섰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먼저 건너야 했는데
당시에는 강물이 범람하는 때였기 때문에
물은 너무 깊고, 물살은 빨랐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아무 것도 못 하고 기다릴 수 밖에 없었죠.

그리고 3일 후,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걸
모두 알게 될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담그면
거센 물살이 기적처럼 잠잠해질 겁니다.”**

그건 정말이었어요.
제사장들이 강물 속에 들어가자마자
강물은 마치 독에 가로막힌 것처럼 그대로 멈추어버렸죠.
물은 서서히 말라가더니 마침내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널 수 있었답니다!

강을 건너 백성들의 눈앞에는
정말이지 높고 견고한 성벽이 서 있었어요.

**“세상에, 저렇게 튼튼한 성은 평생에 처음 보는구만!
저기를 어떻게 지나가지?”**

**“우리가 오는 걸 미리 알았나 봐요.
성문도 꽁꽁! 굳게 잠겨 있어요!”**

여호수아도 고민이 깊어지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여리고 근처를 서성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죠.

바로 그때!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군복을 입고 칼을 찬 채로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어요.
이상하게 여긴 여호수아가 말을 걸었죠.**

“누구시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의 편이요?”

그러자 낯선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렸어요.

**“몰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어찌 하기를 원하시나요?”**

**“먼저, 너의 신발을 벗어라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란다.”**

여호수아가 재빨리 신발을 벗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이제 드디어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 백성들은 여리고 성 주위를 뱅뱅 돌며 행진했어요.
둘째 날, 셋째 날도 계속해서 빙글빙글 행진만 했죠.
성을 무너뜨려야 할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성벽 주위를 돌라고
일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본 여리고 사람들은 이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군사들 뒤로 일곱 명의 제사장들이
양 뿔로 만든 나팔을 불고 있었고
그 뒤에는 처음 보는 이상한 상자를 든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뒤로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발자국 소리와 나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죠.

**“쟤네 도대체 뭐 하는 거지?
한바탕 전투를 벌일 줄 알았더니만
한가하게 뽐뽐뽐뽐 나팔이나 불고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더니 알고 보면
별게 없는 거 아닐까?
그냥 싸울 힘이 없으니가 저런 식으로
우리를 헛갈리게 하는 걸지도 몰라.”**

**하지만 그중에서도 한 사람만큼은
이스라엘이 성을 함락시킬 거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라합’이었죠.
라합은 가족들을 모두 집에 불러 모은 뒤
창문에 매단 붉은색 밧줄을 지켜보았어요.
전에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약속했던 그 밧줄이었죠.**

그렇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행진을 할 뿐이었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날이었죠.
그날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을 일곱 바퀴나 돌았어요.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나자
갑자기 제사장들이 나팔을 있는 힘껏 불었어요!
그리고 그소리에 맞춰서 백성들이
동시에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귀다란 소리였어요!

그때였어요. 그토록 튼튼하던 성벽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순식간에 성 안은 쑥대밭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성을 불태워버렸죠.
여리고 사람들은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하지만 오직 한 가정, 라합의 가족들만큼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죠.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도와준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
가장 중요한 관문을 가장 특이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통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소문은 널리 널리 퍼져서
이제는 멀리 있는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